



## 겨울 야경 산책 역사·문화·낭만에 취하는 한겨울밤

글 신재우 기자 · 사진 임귀주 기자

### 1 부산 초량동 산복도로

산이 많고 평지가 부족한 부산에서는 산복도로(山腹道路)가 발달했다. 산비탈에 빼곡히 들어찬 계단식 집을 지나는 이 도로는 이방인이 모여든 20세기 부산의 특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제 강점기 부두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 해방 이후 귀국 동포들과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의 애환이 커켜이 쌓여 있다. 산복도로를 걷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이바구길'은 근현대사의 이야기와 공동체 가치가 살아 있고 부산만이 지닌 유일한 풍경을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옛 백제병원, 김민부 전망대, 유치환의 우체통 등 오래된 역사가 연결된 명소를 둘러보다 산복도로 아래를 내려다보면 희망의 빛을 발하는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다.

## 2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오색별빛정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수목원은 겨울이 되면 황홀한 빛으로 반짝거린다. 해가 지면 화단과 나무는 하나둘씩 환상적인 빛을 발산하기 시작한다. 빛으로 둘러싸인 동화나라에서 추억을 남기려는 방문객들은 카메라 셔터 누르기에 여념이 없다. 수목원은 올해 아름다운 선율에 따라 빛이 달라지는 '빛의 클래식'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수목원의 대표 정원인 '하경정원'에서는 드보르자크의 '신세계 교향곡'과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에 맞춰 빛이 변하는 이색적인 광경을 볼 수 있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오색별빛정원전은 3월 13일까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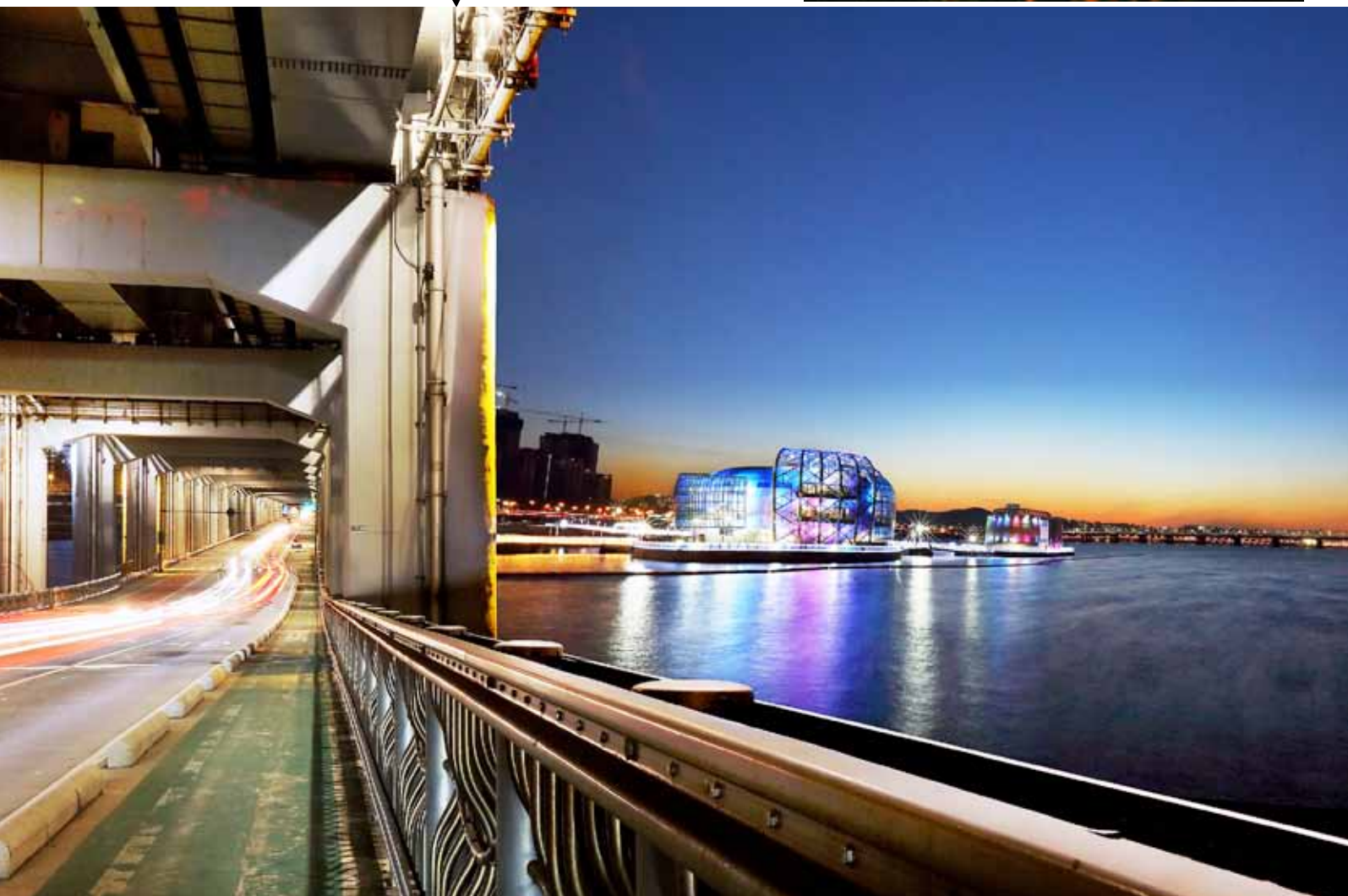
## 3 서울 잠수교와 세빛섬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반포대교는 한국 최초의 2층 교량이다. 홍수가 났을 때 물에 잠기도록 설계된 1층은 잠수교(潛水橋)라는 이름이 따로 붙었다. 잠수교 북단에서 남쪽 반포한강공원 방면을 바라보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화려한 야경 경관을 뽐내는 세빛섬이 보인다. 세빛섬의 알록달록한 빛이 한강 수면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세빛섬은 서울을 대표하는 수상문화공간으로 영화 '어벤저스2'에도 등장했다. 사진에서 푸른 불빛을 발사하는 건물은 세빛섬 내 3개의 인공섬 중 가장 규모가 큰 가빛섬이다. 컨벤션센터와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서 있어 한강을 바라보며 예술과 음식, 문화를 즐길 수 있다.

## 4 여수 돌산대교

고을 러(麗), 물 수(水), 여수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물의 도시다. 전남 동쪽 경계에서 튀어나온 작은 반도는 꽃잎이 흩뿌려진 듯 퍼져 있는 올망졸망한 섬, 청정한 바다와 어울려 극한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여수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항구와 해안선이 만들어내는 황홀한 밤바다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된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탑승장이 있는 돌산공원에서는 돌산대교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다. 화려한 조명으로 불을 밝힌 돌산대교와 여수 밤바다, 시가지의 불빛이 어우러져 황홀경을 연출한다.



### 5 한양도성 낙산구간

어둠이 깔리면 서울은 찬란한 불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굽이마다 서울 600년의 흔적을 품고 있는 한양도성은 포근하게 서울을 감싸 안는다. 서울의 좌청룡에 해당하는 낙산은 아담한 산이다. 혜화문에서 장충체육관까지 이어지는 한양도성 4km 구간에서는 혜화동, 이화동, 창신동, 성북동 등 서울의 오래된 동네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의 몽마르뜨 언덕이라는 낙산공원에 올라서면 산 아래 빌딩숲을 이룬 서울 풍경이 펼쳐진다. 내리막길을 성 안쪽에서 걸으면 낙타 등처럼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는 성곽도 감상할 수 있다. 낙산구간에서는 도성과 현대의 도시가 공존하는 멋진 풍경사진을 얻을 수 있다.



### 6 경주역사유적지구 동궁과 월지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의 밤이 유명해진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동궁과 월지 덕분이다. 왕자가 머물던 '동궁'과 달빛이 물에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는 신라 왕궁의 별궁 터다. 월지는 오랫동안 안압지로 불렸다. 어둠이 내린 동궁과 월지는 경관 조명을 받아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검은 연못에 비친 동궁과 월지가 만들어내는 데칼코마니는 신라의 숨결이 났 환상적인 시간 여행을 선사한다. 역사유적지구 내 월성지구는 신라 왕궁이 자리하고 있던 월성,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가 태어난 계림, 동양 최고(最古)의 천문시설인 첨성대 등을 아우른다.



### 7 통영 운하와 통영대교

한려수도의 길목인 통영. 수많은 섬들이 수놓인 바다와 항구는 낭만을 불러일으킨다. 통영은 연중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대기를 채우는 고장으로 겨울 여행지로 손색이 없다. 통영의 항구에는 고깃배와 사람들이 언제나 활기차게 북적거리고, 바닷가를 긴 웅만한 관광지에서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펼쳐진다. 어둠이 깔린 후 육지와 산양(미륵도)을 잇는 충무교에 올라서면 저 멀리 초록빛을 발산하는 통영대교와 통영 운하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박경리, 유치환, 전혁림, 김춘수, 윤이상을 키워낸 통영 바다의 매혹적인 밤 풍경에 빠지기에 좋은 장소다.

### 8 수원화성 팔달문

수원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 낮은 구릉을 따라 쌓은 수원화성은 정조가 자신의 이상과 염원을 투영한 곳이다. 종래에 볼 수 없었던 최첨단 건축술이 동원된 화성은 동양 성곽의 웅장함과 서양 성의 화려함, 실용성을 고루 갖추어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 환하게 쏟아지는 달빛 아래 모습을 드러내는 수원화성의 야경은 일품이다. 수원 시내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서장대, 오색 조명을 받아 흐르는 수원천이 지나가는 화홍문 등이 화성 야경의 백미로 꼽힌다. 특히 남문인 팔달문은 화성에서 가장 불مان 건축물로 여겨진다. 반원형의 웅장한 웅성은 경관 조명 속에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7



8



9



### 9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이국적인 야경을 선사한다. 영종도와 송도를 연결하는 총연장 18km 인천대교와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의 고층 빌딩, 미래 도시에 어울리는 화려한 조명과 대도시에서 보기 힘든 넓은 녹지 때문이다. 송도국제도시 야경 조망지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동춘터널이다. 터널 상부는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고 인천대교를 볼 수 있는 전망데크 마련돼 있다. 이곳에서 송도를 바라보면 환상의 S라인과 뾰족한 주탑을 뿜내는 인천대교, 국제도시의 고층 빌딩, 검은 바다와 코발트색 하늘이 각자의 매력을 선명하게 드러낸다.